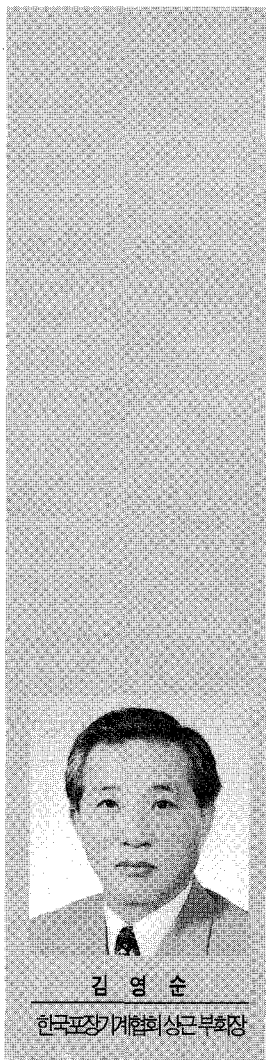


포장기계협회 10주년을 돌아보며



김 영 순
한국포장기계협회상근부회장

1994년 9월 10일, 하나로 가기 위하여 뜻을 같이한 포장기계인 14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모든 포장기계인의 바람이자 1994년 1월 기계산업진흥회 신년 인사회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되었던 우리 포장기계인의 결속의 준비작업이 활발하고 또 심도있게 논의되면서 창립 발기인 20명을 선정하는 등 창립총회 준비와 관련된 의논이 진지하게 토의되고 있었다.

포장 작업과 라인작업의 자동화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포장기계와 포장기술은 다른 산업기계에 비하여 포장기계와 포장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에 몸담고 있는 우리 포장기계인도 어느 정도는 다른 기계공업인에 비하여 환경과 생각 그리고 서로의 생활문화가 조금은 다르고 특수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처럼 다른 산업분야에 비하여 특수한 속성을 가진 포장기계산업의 종사자들이 하나로 가기 위한 그 디딤돌을 마련키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음은 실로 역사적인 순간이고 하나의 사건이라 말하지 아니 할 수 없다.

10년에서 20년 이상을 포장기계 생산을 했어도 서로의 얼굴을 모르고 지냈으며 이름은 알아도 누구인지를 모르던 포장기계인들이 하나로 가기 위한 협회 발족의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가 바로 1994년 9월의 일이다. 이후 조직과 정관의 초안을 마련하고 그 해 10월 12일 서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관련 내외귀빈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한국포장기계협회 창립총회를 실시함으로 공식적으로 협회가 발족되어 그 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때 창립 총회시 가입 회원사는 31개사에 불과 하였다. 그 당시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우리포장기계인들이 서로 뭉쳐서 서로 도

와주고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존공생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한 심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결코 협회 결성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며 또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배타적인 사람들도 적지 않았음을 당시 창립 회원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창립된지 3년만에 설상가상으로 1997년 우리에게 닥쳐온 IMF의 위기때도 하나의 낙오나 도태없이 우리 회원사들은 지혜와 슬기로 잘 극복하였음은 우리들의 숨은 저력이 아닐 수 없었으며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이제 만 10년이 지난 현재 가입회원사는 창립 당시 31개사에서 110여개 회사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협회로 발전하였으며 창립 당시만 하여도 서로 정보교환의 고갈로 상대방의 매출과 공장 위치와 규모가 알려 지지 않는 등 매우 폐쇄적인 분위기가 있었으나 협회는 발족 이후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매월 월례회를 회원사의 공장을 순회 방문하여 실시한 바 서로 마음을 열어가는 방향으로 크게 호응을 얻었으며 방문사의 작업현장과 내부를 완전 공개하고 때로는 생산과 기술과 영업의 노하우도 공개하는 등 매우 협조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사간 매우 우호적이고 격의 없는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이에 대다수의 회원사가 협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호응으로 찬성과 동의를 표해 많은 신규 회사가 가입을 서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협회란 원래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이익창출에 앞장서야 하고 회비만 내고 아무 혜택과 도움이 없으면 안된다는 원칙 하에서 협회를 창립하였

고 모든 협회 업무를 회원사 위주로 진행했기 때문에 회원사의 호응과 반응이 아주 긍정적으로 좋았다.

특히 각종 국내외 전시회를 통하여 회원사의 판매전략과 이익창출에 부응하기로 하고 국내 유일의 포장기자재 전시회인 KOREA PACK 전시회를 1998년도(당시에는 IPP)부터 공동으로 개최(주관)하면서 출품하는 회원사의 편의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회원사에게 제공해 전시회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KOREA PACK이 국내에서 가장 큰 포장기자재 전시회로 자리 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전시회의 참가와 참관을 통하여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시장 개척은 13명의 사장들로 구성된 중국시장조사단을 1998년 9월 중국 광저우 포장관련 전시회에 파견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중국시장 진출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중국시장 개척에 주력한 결과 매년 상하이와 베이징 한국관을 구성하여 판매촉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포장관련 전시회에도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면서 회원사의 편의제공은 물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 협회는 수출만이 중소기업의 살길임을 인식, 1998년 10월 해외시장개척 지역별 위원회(일본지역, 중국지역, 동남아지역, 미주지역, 유럽지역)를 5개권역으로 구성하고 특히 중국시장의 진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그 필요성이 절박함을 인식하고 2001년 4월 중국 베이징에 협회 사무소를 개소하고 상주인원이 협회 업무와 회원사의 기계 판매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내 포장관련 협회와도 긴밀한

협조와 연락을 하고 있다.

협회란 각기 규모가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많은 회원사가 한자리에 모여 활동하는 단체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포장기계협회는 모든 회원사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와 이해로 뭉쳐 있으며 모든 가입회원은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더 많은 회원사가 가입하여 함께 활동하기를 협회 회원사 모두는 바라고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이란 경영에 애로가 많은법, 그 고충은 우리 중소기업인만이 아는 것이 아닐까?

이에 협회에서는 이들의 사기를 다소라도 높이기 위하여 1999년 10월 둘째 목요일을 포장기계인의 날로 제정하고 각종기념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포장기계대상 제도를 수립하여 경영관리부문, 기술개발부문, 품질관리부문, 판매수출부문의 4개부문으로 매년 10월 포장기계인의 날인 정기총회시 중소기업청장 상으로 분야별 대상을 300만원 상당의 부상과 함께 수여하고 있다.

한국포장기계협회는 1998년 8월 협회 웹사이트(<http://www.kpmasite.or.kr>)를 개설하고 회원사의 웹사이트를 링크 시켜 전세계에 회원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한국포장기계편람을 발행하여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전세계 100여개국에 편람을 배포하여 한국포장기계의 기술수준과 상품정보를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2003년 8월 협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업무의 영역을 넓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2003년 10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세계 유일의 세계포장기계협회 총연맹(C.O.P.A.M.A-Cofederation of Packaging Machinery Association)의 총회에서 한국포장기계협회(KPMA)가 세계에서 14번째로 가입 승인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 하고 있는 일본의 일본포장기계공업회(JPMA)와 중국의 중국식품과 포장기계협회(CFPMA)와 더불어 상호 각종 자료의 교환과 포장기계전시회의 협력 등 명실상부한 세계속에 포장기계협회로 자리매김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기술교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C.O.P.A.M.A의 총회가 우리나라의 KOREA PACK 전시회 기간 중에 유치되어 전세계 포장기계인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장기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포장기계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포장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연계하여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대학에 포장 실습기자재를 기증하였으며 각종자료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우리 협회는 성공적인 중국시장개척을 경험으로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의 해외 시장개척을 서두르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11월 개최되는 Emballage 전시회에도 국가관을 계획중에 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개최되는 세계최대 포장관련 전시회인 독일 뒤셀도르프의 Inter Pack에 한국관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Japan Pack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ProPak China 전시회는 예년과 다름없이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한국관을 계획



▲ 지난해 10월 개최된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

하고 있다.

이제 우리 협회는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축하 기념행사를 오는 10월 20일 서울 강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제6회 포장기계인의 날 행사와 포장기계대상(중소기업청장상)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모든 포장기계인과 내외 귀빈이 한자리에 모여 자축하는 행사를 중기청장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산자부 또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약 250여개의 포장기계업체의 실태조사를 우리나라 최초로 시행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한국포장기계협회는 더욱 알찬 협회로 발전하여 회원사의 모든 편의제공과 권익보호에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회원사의 수출신장에 더욱 정진할 것이다.

또한 회원사간의 우의와 친목도 소홀히 해서 는 안될 분야로 인식하여 매년 단합워크숍을 부동반으로 국내는 물론 동남아와 중국 등지의 문화탐방으로 세계속에 작은 한국을 심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고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를 만들며 지나간 매우 값진 세월로 점철하여 보면서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나간 10년을 음미하고 반성해 본다.

둘은 하나보다 강하고 다수는 소수보다 힘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서로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우리 협회에 가입하여 함께 생각하고 함께 활동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우리 포장기계인들이 하나로 가는길의 길목에서 우리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